



후기 집

Creativity Changes the World





| 문 건 기

- KAIST 1기 수료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 해치랩스(주) 최고전략책임자

앞으로 찾아올 세상의 변화를
내다보고, 지구 반대편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바꿀수 있다는 것이 날 완전
히 매료시켰다.

🔍 주요이력

- 해치랩스 주식회사 최고 전략 책임자(Chief Strategy Officer)
-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Decipher) 부회장
- 서울대학교 경영학, 컴퓨터공학 복수전공
- (전) NTU Corp. 서버 개발자
- (전) (주)하이퍼커넥트 사업개발 매니저

⚙️ 창업경험

- 해치랩스 주식회사(2018~현재)
블록체인 기술 솔루션과 R&D 역량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이끄는 대표적
인 기술 기업
대표적인 솔루션으로는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
록 돕는 SaaS 솔루션과 스마트 컨트랙트 운영에 최적화된 오픈소스 CLI 도구
'VMSP(비습)',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코드 보안감사
최상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세계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
스를 구축할 때 누구든 저희의 솔루션을 쓰게 만들자는 것이 해치랩스의 미션
- 삼성전자 C-Lab 육성 스타트업 선정
- 신한 Future's Lab 선정

👤 사례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몇 가지 자격
증을 따보겠냐며 권유하시면서 처음 만져보기 시작했던 컴퓨터에 빠져 눈에 보
이는 대로 온갖 자격증들을 정복해나갔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컴퓨터 프로그
래밍에 빠졌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니던 김포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접하게 해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학원에 가서 매일 복잡한 수학
문제의 최적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코딩하기 시작했다. 경
기도 정보영재에 뽑히기도 하고 이런 저런 대회에서 상도 받으니 흥미가 더 붙
어서 나는 'NASA(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겠다'는 구
체적인 꿈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굳이 NASA였던 이유는 당시에 내가 다니던 초등
학교 옥상에 천문대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주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의 희망 진학 코스는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 MIT(매
사추세츠 공과대학교) - NASA였다. 시골 촌놈치고 꽤 글로벌한 진학 계획이었
다. 그래서 나는 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정보올림피아드 은상 이상을
수상하여 특전으로 가는 길을 택하였으나, 빛보다 빠르게 탈락했다. 16년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실패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이 실패를 기
점으로 진짜 내가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찾았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이 당시 과학영재학교를 지원하면서 함께 지원했던 곳이 있었다. <KAIST IP영재
기업인교육원>이다. 처음 생겨난 교육원이었는데 한국에서 제2의 빌 게이츠,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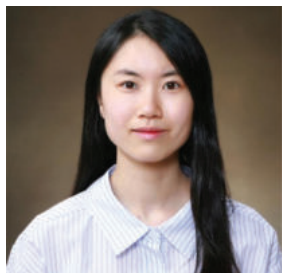
티브 잡스를 길러내겠다는 문구에 이끌려 신청했다. 이 교육원은 선발 과정부터 매우 신선했다. 2박 3일 간 중고등학생들에게 당시(2009년) 정부 정책이던 녹색 성장에 대해 설명한 뒤에, 8명 가량을 한 조로 묶어놓고 정부 기조 아래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사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수익 모델을 디자인하여 발표하라고 하였다. 그동안 수많은 영재교육원 선발 과정에서 해오던 과제와 평가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것이었다. 과제를 공지받고 난 뒤의 신선한 충격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매일 밤을 새가며 우리 팀은 국가간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발표했고 많은 팀원들이 합격할 수 있었다. 이후에 고등학교 생활 3년 간 매주 온라인 교육, 매달 1회 오프라인 교육을 받았다. 오프라인 교육 역시 선발 캠프 때와 비슷하게 1박 2일로 KAIST에 가서 특정 주제에 대한 강연을 듣고 다음날 오전까지 해당 주제와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여 업계 종사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식이었다. 당시(2010년)는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는데 앞으로 10년 간 모바일로 세상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강연을 듣고 새로운 모바일 앱 아이디어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강연자와 차후 비즈니스 협업 관계로 다시 만났다는 점은 반가웠다.)

나는 이러한 과정들에 엄청난 흥미를 느꼈고 매 캠프가 기다려지며 가슴이 벅찼다. 물 만난 물고기 같았다. 앞으로 찾아올 세상의 변화를 내다보고, 그 속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내가 만든 서비스가 지구 반대편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뻗어가서 그들의 삶의 양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나를 완전히 매료시켰다.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이디어를 곧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하는 경험은 어린 나에게 엄청난 배움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꿈이 바뀌었다. 세상을 바꿀 서비스를 만들 스타트업의 기업가가 되고 싶어졌다. 이과였던 내가 경영학에 진학하기 위해 문과로 옮긴 것도 이 때였다. 그 때까지만 해도 컴퓨터와 수학, 과학만 좋아하던 나였기에, 인문학과 경영학을 배워 좋은 CEO가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매일 밤 고등학교 기숙사 침대에 누워 10년 뒤, 20년 뒤의 내가 사무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엄청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상상을 하며 가슴이 두근대는 채로 잠에 들었다.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 자본을 활용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재단을 세우고 싶다는 꿈도 더해졌다.

언론보도

- 【아 시 아 경 제】 “오픈소스 개발툴로 블록체인 진입장벽 낮추겠다”
- 【조 선 비 조】 “전 세계가 쓰는 블록체인 솔루션 만들고파”... 해치랩스 두 청년의 꿈
- 【파 이 낸 설 뉴 스】 해치랩스 “안전한 ‘킬러 디앱’ 탄생할 수 있는 개발 생태계 주도”
- 【코인데스크코리아】 해치랩스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으로 리브랜딩”... 첫 개발 솔루션 ‘비숍’ 공개
- 【벤 처 스 퀘 어】 해치랩스 · SKT,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 나선다
- 【매 일 경 제】 해치랩스, 중국 블록체인 기업 킵쿠와 업무협약





| 김은엽

- KAIST 1기 수료
- Rice University(Statistics) 졸업

카이스트 영재기업인
프로그램에서의 교육이
없었다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 주요이력

- 민족사관고등학교 졸업 후 Rice University에 진학하여 통계학 전공으로 조기졸업
- 중학교 때 발명했던 안전디스크주사기로 사업화 시도 및 민사고 벤처동아리 설립
- MD Anderson Research Center 및 Methodist Research Institute에서 의료연구 및 의료기기 개발에 참여
- Rice Data to Knowledge Showcase (Project name: Understanding Genomic Basis of Alzheimer), Audience's Choice Award
- UT Southwestern 의대 합격

⚙️ 창업경험

- 인액터스 : 안전디스크 주사기 제작 기업. 의료분야 쪽 전문가들이 자주 겪는 needle stick injury 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주사기 캡 부분에 안전디스크를 설치하여 주사기 캡 주의를 보호. 중학교 때 교육원 캠프에서 멘토링 받았던 안전디스크주사기를 시작으로 민사고 학생들을 주축으로 설립되었으며 의료회사와 계약에 대해 연락이 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
- 라이스크리스피(진행중) : 알츠하이머 환자와 사는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임으로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 받아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대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토대로 퀴즈 맞추기 및 방탈출 등으로 스토리라인이 이어진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게임을 개발중

👤 사례

미국 의대에 지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써야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에세이 주제는 “왜 의사가 되고 싶은가” 입니다. 저는 이 에세이를 쓰면서 KAIST IP-CEO 때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이스트 영재기업인 학생이 되어 저는 의료기기를 발명하고 창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초기를 통틀어서 저는 완전한 문과 학생이었고 과학, 수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중학교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카이스트 영재기업인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저는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파악하며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지만 탄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과학 상식들과 첨단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 점에서 교육원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최첨단 과학기술들에 대한 강의를 지원해주었고, 저는 점점 과학, 특히 바이오기기 쪽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needle stick injury 로 고생하신 것을 본 후, 저는 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안전디스크주사기 발명 및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원에서



민사고 졸업 후 저는 의료가기 개발의 꿈을 안고 미국 최대의 메디컬센터 바로 옆에 있는 미국 남부의 라이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라이스 대학교에서 저는 MD Anderson Cancer Center 및 Houston Methodist Research Institute에서 꾸준히 암 연구를 하며 새로운 의료가기술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카이스트 영재기업인교육원 강좌에서 바이오인포매틱스가 새로운 의료가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이라고 한 기억을 바탕으로 바이오 통계학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 수업이 너무 인상 깊어 통계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통계학 졸업 프로젝트로 저는 머신러닝을 이용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새로운 유전자를 찾아냈고 조기졸업 후 지금까지의 의료연구경험, 그리고 의료가기술 발명 경험을 토대로 미국 의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미 생활로는 정신과 의사분의 자문을 받아 라이스 졸업생들과 같이 치매환자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게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영재기업인 프로그램에서의 교육이 없었다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멘토가 도와주니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청소년 창의교육과 Design Thinking 활용’
세미나 개최





| 권서원

- KAIST 2기 수료
- 홍익대학교(기계정보공학과) 2학년 휴학
- (주)커머 대표

‘세렌디피티’

세상에 선한 가치를 주는
따뜻한 발명가가 되고 싶다.

🔍 주요이력

- 특허출원, 등록 경험 있음
- 특허 기술이전 경험 있음
- 발명 및 설계 & 디자인 등 다양한 툴 사용가능
- 2018 과학창의재단 대한민국 교육기부 아이디어톤 최우수상
- 현재 (주)커머 설립 운영
-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

💡 지식재산권

- 점자용 라벨기 특허 출원 1건

⚙️ 창업경험

- ET(education toy) Factory : 교육교구생산 기업. 발명을 체험할 수 있는 과학교구 키트 개발
- COMER(2017~현재): 사회적약자 혹은 환자들이 생활환경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공학기구 개발판매
 -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정부지원금 7200만원 지원받아 법인을 설립
 - 현재 한화그룹 사회공헌팀과 함께 제품(호퍼)의 사용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부품의 교체 및 점자의 가독성 증진을 테스트하고 있음.

👤 사례

중학교 시절 발명 담당 선생님께서 'KAIST IP 영재기업인교육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선뜻 지원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KAIST'라는 말에 의기소침 했습니다. 제가 아는 'KAIST'는 그야말로 전국의 수재들만 가는 우수한 학교로 이른바 '우물 안 개구리'인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높다란 산과 같은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단순히 학교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지 않고, 만약 합격한다면 더욱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용기를 얻어 대담하게 도전했고, 제 열정을 알아봐주신 박사님들과 연구원님들 그리고 마침 따라준 운(運) 덕분에 최연소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과감한 도전은 더 큰 만족으로 변했습니다. KAIST IP 영재기업인교육원은 일반 학교에서는 절대 배우지 못하는 내용들로 가득 찬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국사'나 '역사'가 아닌 '창조인문학'이라는 과목이 '수학, 과학'이 아닌 '미래기술'과 '기업가 정신' 등 교과목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었고, 오프라인 캠프를 통해서도 유명 CEO나 권위 있는 유명 교수님의 강연을 직접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통해 '글로벌 특허변리사'가 되고 싶다는 제 꿈과 목표를 확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을 받으며 중학교 시절을 보냈기에 또래의 아이들과는 사뭇 다른 '저만의 길'을 만들기 위해 고등학교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 과학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이후 KAIST IP 영재기업인교육원 활동과 학교에서의 활동을 병행하였더니 국제대회에서도 성과를 이루었고, 발명대회뿐 아니라 창업에





서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님 앞에서 저의 발명품을 소개하는 자리까지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발명은 세렌디피티(serendipity,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행운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발명들”이라고도 불리는데 대표적 사례로 플레밍의 ‘페니실린’도 그렇고 3M사의 ‘포스트잇’도 그렇습니다. 즉, 일상 속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직무 발명’이라고 할 수 있죠. 역시 저의 발명들도 모두 제 주변에서 일어난 불편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프신 어머니를 위해 생각한 ‘링거 온열기’와 할머니의 난청으로부터 고안한 ‘스피커 리모컨’,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라벨기’까지 모두 따뜻한 발명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따뜻한 발명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KAIST IP 영재기업인교육원의 수료생으로서 더욱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세계일보】

국회 김규환 의원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발명교육 의무화 방안 추진”



【뉴스원-네이버뉴스】

“아픈 어머니를 위해 발명했어요”... 호심이 발명왕으로



【조선일보】

2013 서울시민 발명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YTN science 황금나침반】

미래의 에디슨 대학생 발명왕!



【서울경제】

“IP영재기업인 교육으로 창업의 꿈 가까워졌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창작 요람 ‘무한상상실’, 지금 그곳에서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교 졸업 1년 만에 창업 결실 맺은 비결은





| 이 현 세

- KAIST 4기 수료
- 건국대학교(기술경영학) 재학
- (주)리얼햅틱스 대표이사

내가 누군가가 정해준
파이에서 한 부분을 차지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파이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누는
기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해주었죠.

🔍 주요이력

- ('14) 중학교 3학년에 교육원 창업팀(Challenge Team)활동 시작
- ('15) 고등학교 1학년에 (주)리얼햅틱스 설립
- ('15) MIT 글로벌 기업가정신과정 세계 최연소 선발 및 수료
- ('16) 한국경제신문 글로벌 인재포럼 연사
- ('16) (주)롯데엑셀러레이터 지분투자유치, 롯데월드 VR테마파크 협업, 과기정통부 5대 VR과제 수행
- ('19) 이더리움재단 공식 지원 블록체인 교육단체 'BASE' 비즈니스 부문 강사
- ('19) 글로벌 해커톤 JunctionX Seoul 2019 준비위
- ('19) 이스라엘 Technion 공대 기업가정신과정 선발(창업진흥원 전액 장학)

🧠 지식재산권

- 결제 및 정보교환을 위한 정보를 내장한 이동식 대용량 저장장치, 곡면의 동체를 가지는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 경험 제공 소프트웨어, 프로필간 속성 지정과 적용 및 검색을 위한 자동 컴퓨터 시스템 등 특허 출원 7건

⚙️ 창업경험

- h.studio(2014) 프로필 및 명함 서비스, 소셜 미디어 시대의 통합 프로필, 전화 번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전달하는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웨어러블을 통한 명함 대체제로서의 서비스 제공.
- (주)리얼햅틱스(2015~현재)
리얼햅틱스는 햅틱 솔루션으로 어떠한 콘텐츠에도, 어떠한 신체 부위에도, 원하는 조건에 따른 맞춤형 진동 자극을 주는 End-to-End B2B VR haptics 솔루션.
- 롯데그룹의 창업투자보육법인인 (주)롯데엑셀러레이터의 지분투자, 그룹 계열사 협업/판로 및 공간지원 유치
- beGLOBAL SF 2015 Top 10 스타트업 선정
- (주)호텔롯데 롯데월드 MOU 및 납품
- 특허법인 다해 투자 유치
- (주)대흥기획 VR마케팅 부문 협력

👤 사례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영재기업인교육원은 “상상하는 것들을 권리화 할 수 있고, 실제 사업으로도 연결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교육원은 창업이 쉽거나 좋다, 꼭 하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업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중강연, 언론에 비추어지는 화려한 모습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실재적인 체험으로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요즘 밤을 자주 새며 매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JunctionX Seoul 이라는 국제 해커톤 개최를 준비하고 있고, KAIST IP 영재기업인 온라인 조교도 하





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업계 스타터도 지인들과 매주 하고 있고요, 생각해보면 지금 내 삶의 콘텐츠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현재도 메우고 있는 것들이 KAIST IP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교육원에서 배운 것은 창업 자체에 대한 스킬이나 지식이 중심은 아니었던 기억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정해준 파이에서 한 부분을 차지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파이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누는 기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해주었죠. 교육원에 처음 들어왔던 나는 토의 한번, 발표 한번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하는 사회성이 매우 결여된 학생이었지만 교육원의 교육과정과 그에 기반한 창업을 통해 이제는 나의 의견을 명확하게 관중에게 전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꼭 창업가가 되지 않더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는 참 소중한 교훈과 역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



【 머니투데이(2015.5.11.) 】

특허 해커톤 (은상) : 가상 게임의 실감성을 높여주는 바이브(진동) 리얼라이징 슈즈
<http://www.mt.co.kr/view/mview.php?type=1&no=2015051113543012593&outlink=1>



【 조선예류 】

“모의 창업하며 꿈 키워 ... 진짜 경영에 뛰어들었죠”

【 조선비즈 】

롯데, '가상현실 · 육아 · 핀테크' 등 13개 스타트업 협업 기업 확정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 <리얼햅틱스>의 이현세 대표를 만나다



【 전자신문 】

‘고등학생CEO’ 이현세 리얼햅틱스 대표 “올해 VR · 진동 연동 솔루션 상용화하겠다”

